

가능한 형이상학적 결핍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결핍에 따라 실제 삶이 확장되도록 방지한다는 것은 깊이로는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위험한 도덕적 정치적 미숙함일 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과 인생의 목적

..... 인간 본성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서로 충돌하는 여러 방향으로 자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유를 주는 일이 .....

인간과 사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

— J. S. 밀<sup>1)</sup>

인간의 권리가 결코 짓밟히지 않고, 생김새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박해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관용이라는 명분을 옹호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인간 경험의 공통적인 패턴에 너무나 잘 따르느라 조상들 중에서 남보다 개명되었던 일부보다도 더 멀리 그 바람직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다. 시민권이 존중받고 다양한 의견과 신념이 관용되던 시대와 사회는 너무나 드물게 가끔씩 나타나서, 마치 불관용과 억압으로 점철된 획일적인 인간의 사막에 간혹 있는

1) *Autobiography*, chapter, 7: vol. 1, p. 259,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ed. J. M. Robson and others (Toronto/London, 1963-91). '지금부터 밀의 저작을 인용할 때의 출처는 이 전집을 기준으로 CW I 259와 같이 권수와 쪽수를 표시한다. 단 이 전집 18권으로 편입된 『자유론(On Liberty)』만은 권수 대신에 장을 표시하여 예컨대 4장 281쪽이라면 I 4/281과 같이 표시한다.

오아시스와 같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서 칼라일과 마르크스는 매콜리와 휘그당에 비해서 예언자로는 더 나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류에 대해 반드시 더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 관용이 바탕으로 삼는 원리에 대해 그들은 최소한으로 말하더라도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원리를 가장 명료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근대 자유주의에 토대를 마련한 가장 위대한 대표자는 주지하다시피 『자유론』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다. 이 책 — R. W. 리빙스턴이 적절하게 지칭하였듯이 이 “위대한 짧은 책”<sup>2)</sup>은 백 년 전에 출간되었다.<sup>3)</sup>

그 후 이 주제는 토론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1859년은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두 사람의 유명한 인물, 매콜리와 토크빌이 사망한 해이다. 그 해는 또한 모든 난관에 맞서 싸우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성을 노래한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프리드리히 실러가 태어난 지 백주년이었다. 훈련된 인간 대중의 커다란 조직이 공장에서 전장에서 정치적 결사체에서 세상을 변혁하면서 발휘한 권력과 영광을 높이 끌어올린 민족주의와 산업주의의 새롭고도 승리에 찬 위력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개인이 말살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승화된다고 보았다. 국가나 민족이나 산업 조직이나 사회적 정치적 집단 앞에서 개인이 처한 곤경은 개인적으로나 공공적으로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 세기 과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인 다윈의 『종의 기원』도 그 해에 출간되어 고대로부터 축적된 교조와 편견을 부수는 데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에 잘못 적용된 결과, 폭력적인 제국주의와 발가벗은 경쟁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어떤

2) Sir Richard Livingstone, *Tolerance in Theory and in Practice*, 제1회 로버트 웨일리 코언(Robert Waley Cohen) 기념강연 (London, 1954), p. 8.

3) 이 글은 1959년에 로버트 웨일리 코언 기념 강연의 원고로 씌어졌다.

무명 경제학자가 쓴 논고 하나가 출판되었는데, 거기에는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신조가 개진되어 있었다. 카를 마르크스가 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 그것으로, 이 책의 머리말에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 아래 거론되는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물론적 역사 해석이 가장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밀의 논고는 나오자마자 정치사상에 즉시 충격파를 던졌고, 그 영향은 지속성에 있어서도 아마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밀턴과 로크에서 몽테스키외와 볼테르까지 개인주의와 관용을 주창한 종전의 저술들을 모두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으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심리학과 엉성한 논리가 섞여 있지만 여전히 개인 자유를 옹호하는 대표적 고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말보다 행동이 더 잘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밀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갈등이 없다.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을 구현했다. 관용과 이치라는 명분에 한마음으로 바친 그의 헌신은 19세기를 빛낸 헌신적 삶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이다.

## I

존 스튜어트 밀이 받은 비상한 교육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18세기의 위대한 이론가 중에서도 막내에 해당하는 인물로, 새로이 등장한 낭만주의의 파도가 대세이던 시대를 살았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스승이었던 벤담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적 유물론자들처럼 그 역시 인간을 하나의 자연적 대상으로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나 물리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견고

한 경험적 근거 위에 확립될 수 있고 확립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인간에 관한 새로운 과학의 원리를 자기가 파악했다고 믿었고, 인류의 모든 참상과 악폐는 오직 불합리한 사고와 행동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원리의 빛을 받아 교육받은 사람, 합리적인 타인의 지도 아래 합리적인 존재로 양육된 사람은 불합리의 두 가지 대표적 근원인 무지와 나약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들 존 스튜어트를 다른 — 덜 합리적으로 교육받은 — 아이들과 격리해서 길렀다. 존의 동무는 사실상 형제자매밖에 없었다. 소년은 다섯 살 때 그리스어를 깨쳤고 아홉 살에는 대수와 라틴어를 터득했다. 아버지는 자연과학과 고전문학을 적절히 혼합해서 조심스럽게 증류한 지성의 양식을 아들에게 먹였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추적할 뿐이라고 벤담에 의해 낙인찍힌 것은 어느 것도, 어떤 종교도, 어떤 형이상학도, 그리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시도 소년에게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음악만이 — 아마도 실제와 다른 세계의 모습을 그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이유로 — 소년이 마음껏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었다. 이 실험은 어떤 의미에서 소름끼칠 정도로 성공했다. 존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삼십 세 성인 중에서도 뛰어나게 박학다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명철하고 분명하고 문학적 소양을 담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정직하게 쓴 자서전에서 스스로 술화한 바에 따르면, 정신이 격렬하게 과잉 개발되는 사이에 감성은 굼어죽었다. 아버지는 이 실험의 가치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탁월한 정보를 갖추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을 생산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교육에 관한 벤담의 견해를 이보다 더 철저하게 변호할 수는 없었다.

심리학적으로 더 이상 것처럼 순진하지 않은 오늘날에는 아이를 그렇게 취급해서 나타난 결과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사춘기

를 지나자마자 존은 생애 최초의 고통스러운 위기를 겪게 된다. 아무 목적도 느끼지 못하고, 의지는 마비된 채 끔찍한 절망감에 빠진 것이다. 잘 훈련받은 대로, 실은 버릴 수 없이 깊이 박힌 습관대로, 감성의 불만족을 명료하게 형상화된 문제의 형태로 돌리기 위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자문했다 — 그렇게 믿도록 배웠고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믿고 있는 보편적 행복이라고 하는 벤담주의적인 고상한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치면, 그로써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욕망이 실제로 달성될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전율케 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눈에는 어떤 목적도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아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모두 메마르고 황량해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분석해 보았다. 혹시 모든 느낌이 완전히 결핍된 것이 아닐까 — 정상적인 인간 본성에서 커다란 부분 하나가 발육감퇴증으로 위축되어 버린 괴물이 아닐까? 더 이상 살아갈 동기가 없다고 느꼈고 죽음을 원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제는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프랑스 작가 마르몽텔<sup>4)</sup>의 회고록에서 애처로운 일화를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눈물을 흘렸다. 이를 계기로 자기에게도 감성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비롯한 벤담주의자에 의해 주입된 인생관에 대한 느리고 은밀하고 기겁지는 않지만 깊은 곳에서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우러나오는 항거의 과정이었다. 워즈워드의 시를 읽었고, 콜리지는 읽은 데 더해 직접 만나보기까지 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역사와 운명에 관한 견해가 뒤집혔다. 존

4) (옮긴이) 마르몽텔(Jean-François Marmontel, 1723~1799): 프랑스 작가, 시인, 철학자, 백과전서 운동의 일원이었다.

은 기질적으로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깊이 존경했으며, 아버지의 철학적인 주지가 타당하다고 확신했다. 교조주의, 선협주의, 무별주의 등, 이성과 분석과 경험과학의 행진에 저항하는 것 모두에 맞서 싸우는 데 언제나 벤담의 편에 섰다. 그는 일생 동안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 그렇지만 그의 인간관,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관점들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공리주의 운동의 원류에 대한 공개적인 이단자는 되지 않았고, 공리주의의 원리나 규칙 어느 것에도 얽매인 느낌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스스로 옳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보유한 채 조용히 무리에서 벗어난 제자가 되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천명했지만,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스승들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합리성이나 욕구 충족이 아니라, 다양성, 다방면의 수완,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집단 한 문명의 자발적인 개성,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이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따른 도약과 같은 것이었다. 편협, 획일, 박해로 인한 자신감 상실 효과, 권위나 관습이나 여론의 무게에 의한 개인성 말살 등을 그는 증오하고 두려워했다. 질서와 단정과 심지어 평화조차도,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열정과 차꼬 채워지지 않은 상상력으로 가득 찬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들의 다양성과 색조들을 문질러 버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기꺼이 맞서 싸우는 임무를 자청했다. 이는 훈련받느라 정서적으로 오그라들고 왜곡된 자신의 유년기와 사춘기에 대한 아마도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할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갖추고 있었던 지적 자산은 그 시대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시대에 견주어도 독보적일 것이다. 그는 명석했고 진솔했

고 매우 선명했으며 지극히 진지했다. 공포나 허영이나 유머는 흔적도 없었다. 그 후 십년 동안은 공리주의 운동 전체의 상속 순위 일번이라는 공식적 지위에서 오는 부담을 어깨에 지고 논설과 평론을 썼다. 그 글들이 커다란 명성을 가져다주었고 여론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스승과 동지들에게 긍지를 주는 원천이 되었지만, 그러나 글의 논조는 그들과 달랐다. 아버지가 찬양했듯이 그도 합리성과 경험적 방법과 민주주의와 평등을 찬양했고, 공리주의자들이 공격했듯이 그도 종교를 비롯한 증명할 수 없는 직관적 진리에 대한 신봉 및 그 결과 빚어지는 교조주의를 공격했다. 그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게 되고 위계질서, 기득권,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불관용, 편견, 반동, 불의, 전제, 참상으로 점철된 사회가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강조의 초점은 바뀌었다. 제임스 밀과 벤담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쾌락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획득하는 것이었다. 영구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을 누가 내놓았다면, 그들은 스스로 내세운 전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그 약을 모든 약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최대 다수의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또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만 있더라도, 그 방법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았다. 벤담과 제임스 밀은 교육과 입법을 행복으로 가는 길로 신봉했다. 그러나 그보다 지름길이 발견되기만 했더라면, 금세기에 대단한 거보를 내디딘 바와 같이 삼키기만 하면 되는 알약이라든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 기술처럼 인간을 조건화하는 수단의 형태라 할지라도, 광신적으로 일관성을 추구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종전에 생각했던 수단보다 더 효과적이고 아마 비용도 덜 들리라 여겨 더 나은 대안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은 삶과 저술을 통해 아주 쉽게 드러나듯이 양손을 저으며 그런 식의 해법을 거부했

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격하하는 것이라고 단죄했을 것이다. 그에게 인간이란 이성을 보유했다거나 도구와 방법을 발명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누가 대신 선택해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때에 가장 자기 자신이 되는 존재, 말이 아니라 말을 타는 자, 수단뿐만이 아니라 목적도 —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달랐다. 그러므로 각자 나름의 방식이 다양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개인들 사이에 교호작용이 일어날 공간이 넓어지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기회가 커지고, 각자 자신의 성격을 신선했던 미답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며, 각 개인 앞에 열려 있는 길도 더 여럿이 되고, 그리하여 행동과 사고의 자유도 폭을 늘리게 된다고 그는 믿었다.

외견상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석해 보면 밀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보기에 바로 여기에 있다. 공식적으로 그는 오직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입장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깊게 신봉했고, 무엇보다도 개인적 자유의 영광을 묘사할 때, 또는 자유를 방해하거나 멸절시키려는 모든 것들을 비난할 때에 가장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다. 벤담 역시, 도덕과 과학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신뢰를 보냈던 프랑스의 선배들과는 달리, 사람은 각자가 자기 행복에 관한 최선의 판단임을 확고하게 천명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자아내는 약을 먹고 그리하여 결코 깨질 수 없는 획일적인 축복 상태로 사회가 고양 또는 타락한 이후에도 벤담은 자신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벤담에게 개인주의란 인간 심리가 보이는 현상에 관한 하나의 사실 자료일 뿐이지만 밀에게는 하나의 이상이다. 밀은 반대하는 소수, 독자적인 입장, 고독한 사상가처럼 기성 질서에 대드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열여덟 살 때 출간된 한 논설에서 (이제는 거의 잊혀진 리처드 칼라일<sup>5)</sup>이라는 무신론자를 관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율은 곡조를 그는 평생에 걸친 저술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 “개혁적 조상들이 이단으로 배교자로 신성모독으로 몰려 지하 감옥에서 사형대 위에서 죽어야 했던 기독교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자선과 자유와 자비를 호호하라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도들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피해만 주었던 바로 그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여 양심을 품고 박해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괴기스러운 일은 없다.”<sup>6)</sup> 그는 평생 동안 이단과 배교자와 신성모독을 옹호하고 자유와 자비를 주창한 선봉장이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주장과 합치했다. 언론인으로 개혁가로 정치인으로 밀의 이름에 덧붙여 거론되는 공공정책 중에서 벤담이 옹호했고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의해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는 — 산

5) (옮긴이) 리처드 칼라일(Richard Carlile, 1790~1843): 보통 선거, 언론의 자유, 남녀 평등, 유아노동 금지, 가족 계획, 신을 믿지 않을 자유 등을 주장한 사회 운동가, 출판인. 그의 입을 막으려 했던 당국으로부터 투옥을 비롯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6) (편집자) 이 대목은 칼라일에 대한 박해를 다룬 《웨스트민스터 평론(Westminster Review)》 2권 3호 1-27(1824년 7월)에 실린 논평 26쪽에 나온다. 알렉산더 베인(Alexander Bain)이 *John Stuart Mill: A Criticism*(London, 1882), 33쪽에서 이 글이 밀의 저작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했기 때문에, 빌런도 그렇게 여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버나드 위시(Bernard Wishy)가 편집한 *Prefaces to Liberty: Selected Writings of John Stuart Mill*(Boston, 1959)에도 그 글이 수록되어 여기에 인용된 대목은 99쪽에 나온다. 그러나 당시 《웨스트민스터 평론》의 공동 편집자였던 존 보링(John Bowring)에게 조셉 파커스(Joseph Parkers)가 보낸 1824년 3월 1일자 편지(HM 30805, Th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lifornia)에 따르면 그 글은 — 파커스가 “박해에 관한 글들”이라 몽둥그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 어쩌면 사실 윌리엄 존슨 폭스(William Johnson Fox, 1768~1864)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밀의 저술이 아니더라도 그 정서가 밀의 정서와 같다는 점은 확실하다.

업이나 재정이나 교육에 관한 거창한 구도라든지 공공 의료 개혁이나 노동 또는 여가의 조직 등—공리주의에 전형적인 기획은 거의 없다. 출판된 저술에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밀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개인적 자유 특히 발언의 자유<sup>7)</sup> 이외의 것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헌신했다. 전쟁이 억압보다 낫다든지, 또는 혁명이 나서 일 년에 오백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를 모두 죽여 버리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말한 경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선언한 경우, 외국의 독재자들을 잡아다가 영국의 형사 법정에 세울 음모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파머스턴<sup>8)</sup> 수상이 실각하자 기쁨을 표한 경우,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군을 비난한 경우, 또는 하원 연설을 통해 페니언<sup>9)</sup> 암살단원들을 (그들이 사형을 면하게 된 데에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변호하거나 여성과 노동자와 식민 지배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권리를 옹호하여 스스로 인기를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영국에서 모욕받은 사람과 억압받은 사람을 옹호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선봉장이 된 경우 등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따지지 않는) 자유와 정의가 아니라 (비용을 계산하는) 공리가 그

- 7) (옮긴이) 영어의 "freedom of speech"에 해당하는 한국어로는 "언론의 자유"가 이미 확실하게 정착된 번역어이지만, 한국 사회의 공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팔목할 만큼 성장해 오는 와중에 "언론"이라는 용어가 특정 직능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바뀌는 경향도 감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고유명사화의 경향이야말로 밀이 가장 혐오했던 바이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로 옮긴다.
- 8) (옮긴이) 파머스턴(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of Palmerston, 1784~1865): 영국 정치인, 수상(1855~58, 1859~65). 19세기 중반 영국의 국제적 위상이 정점에 달했을 때, 외상 또는 수상으로서 외교정책을 이끌었다. 영국에는 안정을 가져다주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지나치게 공세적이었다는 비판을 당대와 후대에서 공히 받았다.
- 9) (옮긴이) 페니언(Fenian):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미국의 아일랜드인들이 결성한 조직의 이름.

의 맘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논설과 정치적 지지를 통해서 더럼의 보고서<sup>10)</sup>와 정치적 운명 모두를 좌우의 양쪽의 협공으로 폐기될 뻔할 위기에서 구했고, 그리하여 영연방에 속한 여러 나라에 자치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자메이카에서 학살을 저지른 총독 에어<sup>11)</sup>의 평판이 무너지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하이드 파크<sup>12)</sup>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모임과 자유로운 연설을 금지하려는 정부에 맞서서 구해 내기도 했다. 소수자들의 의견에 (반드시 덕스럽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사회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서, 글과 연설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옹호했다. 동인도회사의 해체에 반대한 사례는 발본파에 놀라운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자신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기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 관리들의 온정적 간섭이나 비인간적 통치보다는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사태를 더욱 크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간섭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교육과 노동에서 국가의 간섭은, 그것이 없다면 약자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살될 것이고, 몇 사람에게서는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에게 선

- 10) (옮긴이) 더럼(John George Lambton, 1st Earl of Durham, 1792~1840): 휘그당 개혁파 정치인. 캐나다 총독으로 있다가 귀국한 후, 재임 중의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했다(1839). 식민지 주민에게 자치를 더 많이 허용하자고 했지만, 프랑스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등 프랑스계 주민을 영국에 동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11) (옮긴이) 에어(Edward John Eyre, 1815~1901): 오스트레일리아를 탐험한 공으로 식민지 관리가 되어 자메이카의 총독에까지 올랐다. 1865년에 흑인 폭동이 발생하여 진압 과정에서 400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 그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밀과 허버트 스펜서 등은 살인죄를 몰아야 한다고 했고, 토마스 칼라일, 존 러스킨, 알프레드 테니슨은 무죄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받지 않았고, 자메이카인의 제소로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12) (옮긴이) 하이드 파크(Hyde Park):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있는 공원. 그 북동쪽 구석이 "연사들의 무대(Speakers' Corner)"이다.

택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보아 오히려 환영했다. 이 모든 명분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최대 행복” 원칙<sup>13)</sup>과 직접 결부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 즉, 자유와 관용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밀의 마음속에서 “최대 행복” 원칙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그는 종종 자유가 없다면 — 가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원천인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종전에 생각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밝혀 줄 사고 실험 또는 “삶을 통한”<sup>14)</sup> 실험을 행하지 못할 터이므로 — 진리가 발견될 수 없다는 논거를 동원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쾌락 또는 행복으로써 밀이 뜻한 바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답은 전혀 분명하지 않다.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벤담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밀은 생각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벤담의 견해는 너무나 편협하기 때문에 전혀 가당치 못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역사와 사회와 개인의 심리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상상력이 결핍되어, 사회를 한데 묶어 줄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되는 이상, 여러 종류의 충성심, 민족성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명예, 존엄, 존양(存養, self-culture)이라든지 아름다움과 질서와 권력과 능동성에 대한 사랑과 같은 차원을 인식하

13)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벤담의 『정치에 관한 단상(A Fragment of Government)』 머리말에 나온다. 벤담은 나중에 “최대 다수”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 문구는 벤담 이전부터 시작하여 벤담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도 매우 복잡한 역정을 겪었는데, Robert Shackleton은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The History of Bentham's Phrase”,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 90 (1972), 1461-82에서 이 문구의 역사를 명료하게 정리한 바 있다.

14) L 4/281, 아울러 L 3/261에서도 “삶의 실험”이 거론된다.

지 못하고, 삶의 “사업적인” 측면<sup>15)</sup>만을 이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밀은 이러한 가치들이 핵심적이라고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과연 그 가치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일한 보편적 목표로 가는 여러 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궁금해한다. 아니면 행복이라는 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일까?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복 또는 공리라는 것이 행동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벤담주의 사유체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핵심 신조를 일격에 격파한다. 벤담에 관해 쓴 (아버지의 사망 후에야 출판된) 글에서 밀은 “공리 또는 행복은 너무나 막연하고 복잡한 목적이라서 여러 가지 이차적인 목적들을 매개 통로로 삼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다고,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이차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일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sup>16)</sup> 벤담에게는 충분히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였지만 밀은 인간 본성에 관해 잘못된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공식을 거부한다. 사랑과 중요, 정의나 능동성이나 자유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지식이나 자기 희생을 향한 욕구와 같은 것들을 벤담은 무시했거나 아니면 쾌락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분류했지만, 밀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하는 다양한 (그리고 아마도 항상 양립가능하지는 않은) 목적들이라고 보면서 그것들이 모여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저술에서 “행복”의 의미는 “각자 소망하는 바의 실현” —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 의미를 공허하다 싶을 지경에까지 확장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행

15) “Bentham”: CW X 99-100.

16) Ibid., p. 110.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택적”인 직관의 달빛을 대신해서 밝은 빛을 주려고 세상에 나왔지만 가치 없기는 마찬가지인 신세로 전략하고 말리라고 믿었던 종전의 완강한 벤담주의자들에 견주어 볼 때,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떠난 다음이었던 것이다. “둘 이상의 이차적 원칙들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일차적 원칙에 직접 호소해야 하리라”고 밀이 덧붙이는 것은 사실이다.<sup>17)</sup> 공리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해가능하기는 했던 종전의 유물론적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공리라는 발상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벤담이라면 이런 것을 “모호한 일반성”<sup>18)</sup>이라 불렀을 터인데, 그 곳으로 피신하려는 경향이 밀에게서 때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밀의 진정한 가치 척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게 만든다. 그가 주창했던 명분과 그의 삶을 증거로 삼는다면 그가 공적 인생에서 가장 높게 쳤던 가치는—그가 이것들을 “이차적인 목적”<sup>19)</sup>이라 부른 의미가 어디에 있든—개인의 자유, 다양성, 그리고 정의였다. 다양성과 관련하여 반론이 제기된다면, 지금까지 경험된 어떤 삶보다도 행복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인간적 행복이 (또는 만족이나 성취,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그 수준을 어떤 척도로 측정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겨 두고—삶이) 다양성을 충분한 정도로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도될 수도 실현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는 근거를 들어 옹

호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주지이고 이것을 그는 공리주의라 불렀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충분한 행복을 낳는다고 또는 그런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나아가 그런 상태에서는 변화란 경험적인 모든 가능성을 망라해서 일반적인 행복을 낮추는 결과일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본성과 그 환경으로 말미암는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예컨대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 죽지 않게 되거나 에베레스트 산만큼 키가 커지지는 않으리라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변화를 피하고 현재 도달해 있는 최선의 상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밀에게 대변에 일축 당했을 것이라고 장담해도 괜찮을 것이다. 더 큰 진리나 행복이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경험) 어디에 있을지는 (시도해 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그는 진심으로 견지했다. 그러므로 최종 상태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모든 해법은 잠정적이며 임시적이다. 다름 아닌 생시몽과 콩스탕과 훔볼트<sup>20)</sup>의 제자가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사물들에게는 불변의 본성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여타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원칙적으로 한번 정답이기만 하면 영원히 정답인 답을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전통적인—즉, 18세기의—공리주의와는 정면에서 상반된다.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계몽된 전문가들에 의한 정치를 동경했으면서도 (그리고 무비판적일지언정 숭배할 공통 대상이 중요하다고 초년기와 만년에 역설했으면서도), 내면의 생시몽주의를 견제하고 콩트에게서 등을 돌렸으며, 나중에 페이비언 협회를 설립하게 되는 자기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엘리트주의에

17) Ibid., p. 111.

18) (편집자) 이는 벤담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문구이다. 예컨대 “Legislator of the World”, in *Writings on Codification, Law, and Education*, ed. Philip Schofield and Jonathan Harris (Oxford: 1998), p. 46 및 p. 282의 각주를 보라.

19) “Bentham”, CW X 110에서 그렇듯이.

20) (옮긴이) 훔볼트(Wilhelm Humboldt, 1767~1835): 프로이센의 외교관, 언어학자, 철학자, 훔볼트 대학의 창건자. 괴테와 친구로서 그와 더불어 독일의 인문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감정을 배격하는 와중에서도 폐부를 찌러 들어오는 아이러니로 충만한 벤담의 스타일이나 허영스러울 정도로 완고한 제임스 밀의 합리주의에는 전적으로 생소한 자생적이고 계산하지 않는 이상주의가 그의 마음과 행동에는 깃들여 있다. 아버지의 교육 방법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계산기가 되어 버렸다고, 그리하여 항간에 떠돈 바와 같은 비인간적인 공리주의 철학자 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다고 술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를 의식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묘사가 인생의 한 지점에 대해서라도 맞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수리 너머까지 벗겨진 엄숙한 두상, 검은 옷, 무거운 표정, 정확한 언사, 유머라고는 한 치도 없는 태도 등에도 불구하고, 밀의 일생은 아버지의 관점과 이상에 대한 끊임없는 반항의 연속이었다. 이는 그 자신의 의식 아래 잠복하고 있어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사실이다.

밀에게는 예언자적 재능은 거의 없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마르크스나 부르크하르트나 토크빌과 달리, 20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산업화의 정치적 사회적 결과가 어떠할지, 인간의 행태에서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한다고 밝혀질지, 그러한 심리학적 지식이 얼마나 끔찍한 기술의 개발로 이어질지에 관해 어떤 전망도 내놓지 않았다. 세속적 이데올로기들이 풍미하다가 결국 그것들끼리 충돌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묘하게 서로 결합되는 등, 그 후로 벌어진 사회 변혁은 밀의 시야 바깥에 있던 일이다. 그러나 미래의 윤곽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 안에서 작동하고 있던 파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표준화를 혐오하고 두려워했다. 어떤

인위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갈수록 편협하고 사소한 목적에 매달리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 (경애하는 친구였던 토크빌이 상정한 이미지를 빌려 표현하면) 단지 부지런한 양<sup>21)</sup>으로 바뀌 버리거나, (그 자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집단적 범용(凡庸)”<sup>22)</sup>에 빠뜨려 독창성과 개인적 재능의 목을 스스로 점점 세게 조르도록 만드는 사회가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창조되고 있음을 간파했다. 이른바 “조직인”이라 불려온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벤담이라면 합리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혀 반대하지 않았겠지만, 밀은 반대했다. 인간의 문제에 관한 무관심, 소심하고 온순한 태도, 타고난 순응성 등을 잘 알았고 두려워했으며 증오했다. 이것이 친구였지만 그에게 충실하지도 그를 믿지도 않았던 토머스 칼라일과 사이에 공통된 기반이다.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평온을 얻기 위해서 공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자치권을 기꺼이 팔아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는 무엇보다도 주의 깊은 시선으로 경계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은 밀을 전율에 떨게 했을 것이다. 그는 인간적 연대를—아마 치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개인이나 집단의 고립이 개인의 소외와 사회의 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고립을 겁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그 반대편에 위치하는 사회화와 획일성이라는 악에 집중되었다.<sup>23)</sup> 그는 인간의 삶과 성격이 최대한 다양해지기

21) *Democracy in America*, part 2(1840), book 4, chapter 6, “민주적인 나라가 두려워해야 할 전제의 종류”: vol. 2, p.319, ed. Phillips Bradley, trans. Henry Reeve & Francis Bowen(New York, 1945).

22) I 3/268.

23) 해리엇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 『정치경제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및 그 이후의 저술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게 되는데, 예컨대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주의는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를 소원했다. 개인들을 서로서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중에게서 보호하지 않는 한 다양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관용을 그토록 끈질기게 힘 주어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허버트 버터필드는 말하기를 관용에는 모종의 멸시가 함축된다고 한 바 있다.<sup>24)</sup> 나는 네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네 행동이 바보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네 믿음과 행동을 관용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밀도 이 점을 인정했을 것이다. 어떤 의견을 깊은 곳에서 견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느낌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무언가를 깊이 중시한다면 그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적도 있다.<sup>25)</sup> 냉정한 기질이나 의견보다는 것처럼 열정이 주반된 것을 선호했다. 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이해하려고 관용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승인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조롱하고 경멸할지언정 관용하라고, 단지 관용만 하라는 것이다.<sup>26)</sup> 확신이 없

보인다. 밀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와 연결되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다. 그가 사회주의를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회주의 지도자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마르크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루이 블랑이나 프루동이나 라살레나 헤르첸 등 그 누구도—밀을 갈등무 정도로 여긴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보기에 밀은 전형적인 온유한 개혁가 아니면 부르주아 발본파 정도에 불과했다. 오로지 페이비언 협회만이 그가 자기네 선구자라고 주장했다.

24)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Toleration in British Life*, Robert Waley Cohen Memorial Lecture 1956(London, 1957), p. 16.

25) *Autobiography*, chapter 2: CW i 51, 53.

26) (옮긴이) 관용(toleration)에는 싫지만 참고 들어준다, 또는 참고 물러나 가만 놔둔다는 등의 의미가 들어 있다. 즉, 물리력을 동원해서 상대를 박멸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전향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관용의 핵심적인 바탕이다.

다면, 어떤 반감이 없다면 결코 깊은 확신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깊은 확신이 없다면 삶에 목적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신 전에 겪어야 했던 바와 같이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무시무시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노려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용이 없다면 합리적 비판이나 합리성에 입각한 판정을 위한 조건이 파괴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성과 관용을 위해 호소하는 것이다. 이해가 반드시 용서는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면서 주장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꾸짖을 수 있다. 그러나 말을 못하게 입을 막거나 목을 조르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나쁜 것과 더불어 좋은 것도 망가질 테니, 모두 함께 도덕적 지적으로 자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믿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것이 냉소나 무관심보다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불관용에 비하면, 또는 합리적 토론을 모두 죽여 버리는 강요된 정통에 비하면 냉소나 무관심도 해로움이 덜한 것이다.

이것이 밀의 신념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인생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아내와 힘을 합쳐 1855년부터 쓰기 시작한 『자유론』은 이와 같은 신념을 언표화한 고전적인 작품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아내의 사망으로 그녀만이 가졌던 재능으로써 그 글을 더 낫게 향상시킬 수가 없게 된 후인 1859년에야 그 논고를 출판했다.

## II

밀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지는 않고 다만 밀 자신이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했던 두드러진 생각들—반대편 사람들이 그 생전에

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와서 더욱 격렬하게 공격하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 명제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들이 뻗은 소리로 되지는 않았고, 심지어 그것들이 오늘날 개명된 관점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전제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는 형편이다. 그 명제들을 간략하게 열거해 보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가로막기 원하는 경우, 그 까닭은 (a) 타인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강요하고 싶어서이든지, 또는 (b) 순응을 원해서, 다시 말하면 타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거나 타인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c)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진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렇듯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은 오로지 하나뿐이라고 — 그 정답은 이성이나 직관이나 직접적인 계시나 어떤 삶의 형식이나 “이론과 실천의 통일”과 같은 수단을 통해 발견될 수 있고,<sup>27)</sup> 그 권위는 최종적 지식으로 가는 여러 길들과 같기 때문에 거

27) (편집자) 이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마르크스 본인도 앵겔스도 이와 똑같은 문구를 써서 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에 관해서는 Georg Lukács, “What is Orthodox Marxism?” (1919), pp. 2–3 in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trans. Rodney Livingstone (London, 1971). 콜라코프스키(Leszek Kolakowski)는 그 공식의 뜻을 “현실을 이해하는 것과 변혁하는 것이 두 개의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주석한다.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 Growth and Dissolution* (Oxford, 1978: Oxford University Press), vol. 3, *The Breakdown*, p. 270. 이 공식을 구약질이 날 때까지 반복했던 소련의 철학에서는, “자연과학은 소비에트의 산업을 위해 일하고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은 정치적 선전의 도구”라는 뜻이었다. 마르크스의 동시대인들도 비슷한 표현을 (그러나 상황에 따른 변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뜻이 비슷하다고는 여길 수 없다) 사용했다. 예를 들어 밀은 “On Genius” (1832), CW i 336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다고 했고, 오귀스트 콩트도 *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vol. 4 (1854), pp. 7, 172에서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론과 실천의

기에 어긋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드는 착오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성격에서라도 그 진리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정책 또는 심지어 박멸하는 것마저 정당화된다고 — 믿기 때문이다.

밀은 앞 두 가지 동기는 지적으로 주장되는 어떤 논거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반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일축한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동기는 오로지 마지막의 것, 즉 삶의 진정한 목적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해롭기 짝이 없는 오류를 퍼뜨리는 셈이기 때문에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사람에게 오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견해가 언젠가 옳은 것으로 판명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소크라테스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오늘날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인데 다만 그들이 잔악한 오류를 퍼뜨린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였던 것이며, 당대 최고로 고상하고 개명된 사람으로 알려졌던 “가장 온유하고 가장 다정한 철학자이자 통치자”<sup>28)</sup>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도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 역대 박해자들이 사용한 구실 중에서 그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의 역사는 물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아마 덕이 곧 지식이라고 보았던 소크라테스가 그 원조일 것이다. 아울러 “덕 있는 사람이란 이론가이자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의 실천가이기도 하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에 관해서는 Diogenes Laertius 7.125를 보라. 라이프니츠가 1700년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를 설립하자 제안서에 적은 “Theoriam cum praxi zu vereinigen(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권고 역시 특별히 잘 알려진 사례이다. Hans-Stephan Brather, *Leibniz und seine Akademie: Ausgewählte Quellen zur Geschichte der Berliner Sozietät der Wissenschaften 1697–1716* (Berlin, 1993), p. 72.

28) I. 2/237.

에게 가장 익숙했던 구실을 받아들여 — 박해를 승인했다고 대답한다. 박해가 결코 진리를 죽이지는 않으리라고 상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리가 단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나 사형대로 끌려가지 않을 힘, 오류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그런 힘을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발상은 단지 한 조각의 게으른 감상주의(感傷主義)일 뿐”이라고 밀은 갈파했다.<sup>29)</sup> 역사가 보여주듯이, 박해란 그저 너무나 효과적인 따름이다.

종교적 의견에 관해서만 말해 보자. 종교개혁의 불길은 루터 이전에 적어도 스무 번은 타올랐지만 번번이 억눌려 꺼졌다. 브레시아의 아르놀도<sup>30)</sup>도 억눌려 꺼졌고, 수사(修士) 돌치노<sup>31)</sup>도 억눌려 꺼졌고, 사보나를라<sup>32)</sup>도 억눌려 꺼졌고, 알비파<sup>33)</sup>도 억눌려 꺼졌고, 왈도파<sup>34)</sup>도 억눌려 꺼

29) L 2/238.

30) (옮긴이) 브레시아의 아르놀도(Arnold of Brescia, 1090~1155): 아벨라르(Pierre Abélard, 1079~1142)의 제자로 스승과 함께 교회의 재산소유를 부인하는 등 개혁을 주장했다. 1145년 로마에 공화정을 선포한 코린파에 합세하여 한때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를 망명으로 내모는 등 도시를 장악하기도 했지만, 결국 1155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에게 붙잡히고 교황 하드리아누스 4세에 의해 처형되었다.

31) (옮긴이) 수사 돌치노(Dolcino, 1250년경~1307): 교회의 위계질서와 봉건제에 반대하고 일체의 권력으로부터 인간 해방, 그리고 양성평등, 재산공유, 상호부조와 존중을 축으로 삼는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다가 화형당한 이탈리아의 수사. 교회의 군대에 맞서서 비적 떼를 조직해서 무고한 촌락을 유린하고 반대파를 죽이기도 했다.

32) (옮긴이) 사보나를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 도미니코파 신부로 1494년 피렌체에서 공화정이 수립되고 메디치가가 추방되었을 때 정권을 잡았다. 과도한 엄숙주의를 실현하고자 “허영의 화형식”을 거행하여 예술작품, 책, 오락기구, 음란물은 물론이고 거울과 화장품까지를 포함하는 욕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견디지 못한 피렌체 인민의 봉기로 실각하고 재판관을 거쳐 화형에 처해졌다.

33) (옮긴이) 알비파(Albigensis): 영지주의의 일파인 카타리파가 남프랑스의 알비

졌고, 롤라드파<sup>35)</sup>도 억눌려 꺼졌고, 후스파<sup>36)</sup>도 억눌려 꺼졌다. …… 에스파냐, 이탈리아, 플랑드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개신교는 뿌리가 뽑혔고, 메리 여왕<sup>37)</sup>이 오래 살았거나 엘리자베스 여왕<sup>38)</sup>이 일찍 죽었다면 영국에서도 거의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

(Albi)에 모여 살아서 붙여진 이름. 그들은 결혼과 출산과 육식에 반대하고 스스로 굶어죽는 자살을 권고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선포되고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십자군의 공격을 받고 박멸되었다.

34) (옮긴이) 왈도파(Vaudois 또는 Waldenses, Waldensians): 청빈과 금욕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의 발본주의 일파. 카타리파와 마찬가지로 민중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여 12~13세기에 세를 얻었다. 이단으로 몰려 13세기에는 종교재판에 의해 15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일부의 명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2세기에 활약한 왈도(Pierre Waldo, 또는 Vaude)의 추종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들은 왈도가 이 종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35) (옮긴이) 롤라드파(the Lollards):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년경~1384)의 추종자 무리를 가리키는 명칭. 교회 의식의 집전에는 경건이 필수 요소이므로 경건하다면 평신도도 집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교회의 조직적 요소를 부인하거나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예정설을 믿고 화형설을 부인하며 사도의 청빈과 교회재산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15세기로 접어들어 박해가 심해지자 지하로 숨어 후일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으로 흘러들어가 융합되었다.

36) (옮긴이) 후스파(the Hussites):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후스(Jan Hus, 1369~1415)가 화형당한 후 추종자들이 무리를 지음으로써 시작된 운동. 설교의 자유, 평신도의 성찬식 참여, 성직자의 세속적 권력 부인 등을 주장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탄압으로 결국은 소멸했지만,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요구와 체코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37) (옮긴이) 메리 1세(Mary I, 1516~1558, 재위 1553~1558):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의 딸. 이복동생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영국 여왕에 오른 후, 영국의 종교를 가톨릭으로 되돌리고 어머니를 왕비 자리에서 내쫓은 신교도들에게 잔혹하게 복수해서 “유혈의 메리(the bloody Mary)”라 불린다.

38) (옮긴이)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 재위 1558~1603):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딸. 이복 언니 메리의 치하에서 살아남고 왕위를 계승한 후 45년에 이르는 치세 동안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봉합 또는 유예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 불씨는 1603년 스튜어트 왕조의 왕위 계승으로 다시 타오르게 된다.

구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멸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sup>39)</sup>

이에 대하여,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실수하게 될까 봐 겁나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악에게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비겁함일 뿐이라거나, 표현을 바꾸어, 우리라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실수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인도하는 대로 확률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국 삶이라는 것이 실수를 포함할 따름인데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반박한다면? 밀의 대답은 “도전의 기회를 모두 허용했는데도 반증되지 않아서 어떤 의견이 맞다고 추정하는 것은 반증 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과 더 이상 다를 수 없도록 다르다”<sup>40)</sup>는 것이다. 그대는 “나쁜 자들”이 “틀리고 해로운” 견해를 가지고 사회를 뒤엎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sup>41)</sup>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대가 나쁘다거나 해롭다거나 본말전도라거나 틀렸다고 부르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했을 경우의 일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확신은 단지 하나의 교조에서 나온 것일 뿐 합리적이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생각이 출현하더라도 그 빛에 따라 분석되지도 변경되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보장은 없는 터에, 토론을 통해서 말고 어떻게 진리가 출현할 수 있겠는가? 진리로 인도하는 선험적인 길은

39) L 2/238.

40) L 2/231.

41) Ibid.

없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논증만이 원칙적으로 우리의 견해를, 그 견해를 우리가 아무리 확고하게 전지하고 있더라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진리에 대해 장님이 되는 셈이며 수정할 수 없는 오류의 늪에 빠지라고 스스로 선고하는 셈이다.

밀은 강하고 섬세한 두뇌의 소유자여서 그의 논증 중에 무시해도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그가 스스로 명시하지 않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뻔히 드러난다. 그는 경험주의자 즉, 관찰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합리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새로운 관찰은 종전의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론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는 이 규칙이 물리학의 법칙뿐만 아니라 논리학이나 수학의 법칙에도 적용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과학적 확실성이 흥미하지 못하고 다만 개연성이 통치하는 곳, 윤리학, 정치학, 종교, 역사를 비롯하여 인간의 일을 다루는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분야에서는, 의견과 논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합리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에게 반대하여 진리란 직관에 의해 발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경험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밀의 이와 같은 논증을 일축할 것이다. 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별주의자(無別主義者)라고, 교조주의자라고 비합리주의자라고 폄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 밀이 살았던 시대보다 오히려 오늘날 더욱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들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멀리 어린 일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토론의 자유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자유가 다만 진리의 발견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말

이 된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여전히 우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그 사이에 더 나쁜 요인들이 승리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 밀턴이 전에 “설령 지구상에서 모든 신조의 바람들이 풀려나 떠돈다고 할지라도 …… 자유롭게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한 경우를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있”<sup>42)</sup>느냐고 물었다고 해서, 이를테면 인종주의적 증오를 부추기는 의견도 자유롭게 발언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가 그토록 명백한가? 이 주장이 용감하고 낙관적인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어떤 경험적인 증거가 있는가? 자유 사회에서는 선동가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과 맹목적인 광신자가 항상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멈추거나 아니면 결국에 가서는 틀렸다고 증명되는가? 토론의 자유라고 하는 커다란 혜택을 위해서 지불해도 되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아주 많이 지불해도 좋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그것이 무한대까지인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어떤 희생은 너무 크고 어떤 희생은 지불해도 좋은지 누가 말할까? 밀은 이어서 말하기를 틀렸다고 믿어지는 의견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럿이라고, 오류로 보이는 것을 억압하다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도 억압하여 인류에게 손실을 주리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번 진리이면 영원한 진리인 절대적인 진리가 형이상학적이 아니면 신화적인 논증에 의해서 또는 어떤 직접적인 통찰에 의해서 또는 특정한 종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는 밀 자신의 스승들이 믿었듯이 과학적이거나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

42) *Areopagitica*(1644), vol. 2, p.561, in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New Haven and London, 1953-82).

한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인간의 지식은 원칙적으로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언제나 오류일 가능성을 담고 있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단일한 진리란 없다. 각 사람, 민족, 문명은 각기 나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 있는데 그 목표나 길들이 반드시 서로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과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 밀의 표현을 빌리면 “삶을 통한 실험”<sup>43)</sup>에 의해서 — 바뀌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는 진리도 바뀐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에서부터 수많은 기독교 스콜라 철학자를 거쳐 무신론적 유물론자까지 공유하는 확신, 겉모습은 변화하지만 그 저변에는 언제나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인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 있고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확신, 인간의 본성은 고정되고 불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하나의 패턴 또는 목표에 의해 통솔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것처럼 영원히 보편적으로 하나라는 확신은 틀렸다. 이 확신과 결부되어, 자연법, 또는 신성한 책이 드러내는 계시, 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통찰, 또는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지혜, 또는 인류를 다스리도록 마련된 공리주의 과학 엘리트 집단의 계산 안에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하나의 단일한 진정한 신조가 있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로 틀렸다. 이와 같은 추정들을 전제로 삼을 때에만 밀의 논증은 그럴듯한 것이 된다. 그리고 밀 자신이 스스로 자각했든지 못했든지, 그가 이런 추정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43) L 4/281에서는 “experiment in living”이라고, L 3/261에서는 “experiment of living”이라고 표현했다.

밀은 공리주의자로 자처한 사람치고는 용감하게 인문과학의 (즉 사회과학의) 분야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서 애당초 과학이라 일컫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보았다. 거기에는 타당성을 확보한 일반 명제도 없고 법칙도 없으며, 그러므로 어떤 예측이나 어떤 행동의 규칙을 어떤 법칙으로부터 마땅히 연역할 수도 없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추앙했고 오귀스트 콩트를 존중했으며 허버트 스펜서와 협력했는데, 아버지의 철학은 송두리째 이와는 정반대의 추정 위에 기초하여 진행했었고 콩트와 스펜서 역시 모두 다름 아닌 사회과학이라는 발상에 기초를 놓았다고 자임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밀이 마음속에 절반 정도 뚜렷하게 간직하고 있던 추정은 그들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발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빚어내고, 인간이 자연 및 타인들과 교호한 결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바로 그 새로움이야말로 사람 안에 내재하는 가장 인간다운 특질이라고 밀은 믿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밀의 모든 견해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발상이 아니라, 영속적인 불완전성과 자기 변혁과 새로움에 따라 인간의 삶이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밀이나 버클이나 콩트나 스펜서의 작품들은 19세기 사상의 강물에 잠겨 있는 반쯤은 잊혀진 방대한 종이몽치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밀의 말들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문제에 최종적인 해답을 주기 위하여, 또는 모든 중요한 쟁점에 관해 보편적인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이상적인 조건을 요구하지도 예측하지도 않았다. 최종성이란 불가능하다고 추정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시사했지만, 그런 점들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엄밀한 논증은 그의 업적에 속하지 않는다. 그 래도 그의 믿음이 확고했던 만큼 그의 입장은 일리도 있으면서 인

간적인 것이 될 수 있었고, 엘베시우스와 벤담과 제임스 밀이 구축한 체계적인 신조에 대해 그가 논증을 통해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초로 삼았던 토대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다.

그의 논증에서 나머지 부분은 더욱 취약하다. 반대 의견에 맞서 단련되지 않는다면 진리는 교조나 편견으로 타락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살아 있는 진리로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들판에서 적군이 사라지는 순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각자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잠을 청하고, 이내 확정된 의견이라는 깊은 잠에 빠진다.”<sup>44)</sup> 만약에 진짜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지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반대하는 논거와 주장을 우리 스스로 발명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이에 대한 밀의 믿음은 깊었다. 이는 인류로 하여금 정체에 빠지지 않도록 전쟁이 필요하다는 헤겔의 주장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사에 관한 진리가 이를테면 수학적 진리처럼 증명 가능한 것이라면, 단지 틀렸기 때문에 폐기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틀린 명제를 발명해야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밀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는 의견의 다양성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진리의 모든 측면을 공정하게 다룰”<sup>45)</sup>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데, 이런 식의 문구는 초기의 공리주의

44) L 2/250.

(편집자) “확정된 의견이라는 깊은 잠(the deep slumber of a decided opinion)”이라는 문구를 밀은 “어떤 현대 저자”에서 따왔다고 할 뿐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전집 18권(CW xviii)의 편집자인 J. M. Robinson도 그가 누군지 찾아내지 못했다.

45) L 2/254.

자들처럼 단순하고 완전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용할 리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회의주의적 면모를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까지) 숨기기 위해 엉성한 논거를 만들기도 한다——“인간 정신이 처한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진리에게 이익이 된다.”<sup>46)</sup> 그리고는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들의 논리를 수용하여 우리는 옳기 때문에 저들을 박해할 수 있지만 저들은 그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sup>47)</sup> 가톨릭, 개신교, 유대인, 이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 득세했을 때에는 그런 논거를 가지고 박해를 정당화했다. 그들 나름의 전제 위에 서면 그들의 논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밀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전제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가 그 전제를 거부하는 까닭은——내가 아는 한 이 점을 그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어떤 추론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도 수정될 수 없는 최종적인 진리는 적어도 오늘날 이념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곳, 즉 가치 판단이라든지 삶에 대한 전체적 시각과 태도에 관련되는 영역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형식과 가치관 안에서 “삶을 통한 실험”과 그 실험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의 가치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밀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가장 깊고 가장 영원한 관심사인지에 관한 자신의 확신이 진리라는 데에 많은 것을 걸었다. 그가 생각한 이유들은 선형적인 지식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도출되었지만, 그 명제 자체는 전통적인 자연권 이론가들이 형이상학적인 근거 위에서 옹호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개인적 삶에서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일부가——그는 이를 불가침으로 여겼다(또는 불가침으로 만 들고 싶어 했다)——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온전한 인간으로 계발되고 성장하여 완성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유, 즉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한다고 신봉했다. 인간이 무엇인지, 따라서 인간에게 기본이 되는 도덕적 지적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의 견해가 여기 있다. 그는 그 결론을 기념비적인 적언의 형식으로 표현했다——“그 행동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해득실에 상관이 없다면 개인의 행동은 사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48)</sup> 그리고 “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그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 경우뿐이다. 물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목적은 명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타인이 보기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도록 사람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일 수 없다.”<sup>49)</sup> 이는 밀의 신앙 고백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의 궁극적인 기초이며, 따라서 그의 생전에 그리고 사후에——심리학적인 근거에서든 도덕적(사회적) 근거에서든——반대하는 논적들이 공격할 때에 겨냥하는 과녁의 중심이다. 칼라일은 동생 알렉산더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답게 격노하면서 이에 반응했다. “인간 돼지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마치 최악이라도 된다는 양…… 하느님 맙소사(Ach Gott im Himmell)!”<sup>50)</sup>

좀 더 온유하고 합리적인 비판자들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

48) L 5/292.

49) L 1/233-4.

50) 1859년 5월 4일자 편지, *New Letters of Thomas Carlyle*, ed. Alexander Carlyle (London and New York, 1904), vol. 2, p. 196(no. 287).

46) L 2/257.

47) L 4/285.



제선을 긋기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는 아니며, 인간에게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은 실제 현실에서 대개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음을 지적한다. 남들이 수행하는 숭배의 형식에 대하여 단지 “혐오스럽다”<sup>51)</sup>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 및 자기네 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거나 비합리적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밀을 겨냥하여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진심으로 돼지고기를 보면 역겨움을 느끼는데 왜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면 안 되느냐고 밀이 설의법(設疑法)을 사용하여 물을 때, 공리주의의 전제 위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답이 결코 자명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밀이 제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질서보다 완전히 사회화되어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어 사라질 지경에 이른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더 행복하지 —가령 행복이 목표라고 치면— 말아야 할 어떤 선택적인 이유도 없고,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실험해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사회적 법적 규칙들이 너무나 자주 단지 “사회의 호불호”<sup>52)</sup>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현실에 밀은 지속적으로 항거하면서, 사회의 호불호란 대개 불합리하거나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바른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만약 타인에게 해를 끼치느냐 마느냐가 (밀 스스로 언명했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믿음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본능이나 직관에서 나오고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못한다고 해서

51) L 4/283.

52) L 1/222.

그로 인한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타인에 대한 해로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왜 합리적인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비해 자기네 목적을 충족할 자격을 더 가져야 하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다수가 합리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최대 행복이 유일하게 정당한 행동의 목적이란 면서, 왜 비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가? 특정 사회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질 것인지는 오직 능력 있는 사회심리학자만이 답할 수 있다. 만약 행복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마녀를 화형에 처하는 등의 행위도 강력한 대중의 정서가 뒷받침해 주면 그 나쁜 시절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다수의 행복에 기여했다. 도덕에 행복 말고 다른 기준이 없다면, 무고한 (이런 행위가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무지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늙은 여자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행복의 수지타산이 더 나아지는지, 안락한 착각에서 벗어나 지식과 합리성을 증진함으로써 것처럼 혐오스러운 결과가 빚어지더라도 전체의 행복이 증진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단지 회계장부 상의 계산만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밀은 이런 고려들에 대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지적들보다 그의 모든 느낌과 믿음을 심하게 거스르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밀의 사상과 느낌의 핵심에는 공리주의도 아니고, 계몽에 대한 관심도 아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도 아니고 —교육이나 위생이나 사회의 안전이나 정의를 위해 국가가 사적 영역에 침입할 수 있다고 그 자신이 때로는 양보하기도 한다— 악을 선택할 때도 선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선택의 능력으로써 사람이 된다는 열정적인 믿음이 자리한다. 오류의 가능성, 실수할 권리는 자기향상의 능력과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며 대칭성이나 최종성은 자유의 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 밀은 이런 원칙들을 한 번도 저버리

지 않았다. 진리의 다면성과 인생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예민하게 의식해서 어떤 간단한 해법이 가능하든지 어떤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정답을 찾겠다는 따위의 발상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보았다. 성장기의 환경이었던 엄격한 지적 청교주의를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서로——이를테면 콜리지의 신조와 벤담의 신조처럼 (자서전에서 그리고 그들에 관해 쓴 글에서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양립 불가능한 신조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한 단계 높은 안목의 빛을 얻어야 한다고 무척이나 과감한 설교를 펼쳤다.

### III

칸트는 “인간성이라는 뒤틀린 목재로 똑바른 것이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sup>53)</sup> 밀은 이 말을 깊게 신봉했다. 이 믿음에 덧붙여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변화의 와중에 있는 현실의 상황을 간단한 모델이나 명료하고 건조한 공식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한 거의 해결과 비슷하다 할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밀은 조직된 정당이나 강령에 대하여 확신하기는커녕 아주 마뜩찮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회악을 어떤 거창한 제도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그토록 변론했고 해리엇 테일러마저 (그녀가 믿은 해결책은 사회주의였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믿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까닭은 자연적인 원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 하는 일로 말미

암아 때로는 의도되지 않았던 방향으로까지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보아 어떤 명백하게 식별된 최종적 목표라는 발상 안에서 안주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며, 기계에 대한 비유에서 영감을 받았든 생물체의 비유에서 영감을 받았든 어떤 법칙이나 이론도 집단은 고사하고 한 개인의 성격에 내재하는 복잡성과 질적인 속성들을 포섭해 낼 역량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사회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구성된 설계도를 강요해 가지고는 그가 늘 즐겨 사용하던 표현대로 인간의 권능을 “왜소하게 만들고” “불구로 만들고” “경련이 일어나게 만들고” “피 말려 죽이는”<sup>54)</sup>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입장에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든 것은 곤경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각기 나름의 특정한 처리 방식이 필요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는 적어도 해부학이나 약학과 같은 분야에서 법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정도와 같다는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지만) 믿음과 확신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합리주의자도 독일의 형이상학자도 아닌 영국의 경험주의자였고, 발전으로 가는 위대한 노선(*grandes lignes*)에 관심을 집중했던 엘베시우스나 생시몽이나 피히테와는 달리 각 사례의 개별적인 본질과 “풍토”<sup>55)</sup>의 차이와 나날이 바뀌는 상황의 작용에 민감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사회적 압력의 위협에 항거하기 위해 그는 몽테스키외를 능가하여 토크빌만큼 염려하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을 먹이로 삼아 사회 전체가 달려드는 사태를 증오하게 된 것이고, 반대자와

53) *Kant's gesammelte Schriften*(Berlin, 1900-), vol. 8, p. 23, line 22.

54) I 3/265, “불구로 만들고(*maim*)”는 271.

55) I 3/270.

이단자 그 자체를 보호하기를 원하게 된 것이다. 사회의 의견이 “개인들에게 법칙이 되어야 한다”<sup>56)</sup>고 선포하는 괴물 같은 원칙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런저런 구도나 개혁책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사회의 의견을 바꾸려는 시도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진보주의자들 (공리주의자 그리고 혹 사회주의자를 뜻할 수도 있다) 그가 비판한 요지였다. 본원적 가치로서 다양성과 개인성을 향한 밀의 압도적인 열망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라고 강제당할 때보다 각자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서 견딜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 이 말은 분명히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런데도 “현존하는 의견과 관행이 흘러가는 일반적 경향과는 어긋난다”<sup>57)</sup>고 그는 선언한다. 이보다 예리한 단어들로 표현한 대목도 있다. “공인된 표준”을 준봉하라고, 다시 말해 “어떤 것도 강하게 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그 시대의 습관처럼 되어 버렸음을 지적한다. “이 시대가 이상으로 여기는 특성은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 눈에 띄게 튀어나오으로써 한 사람을 통상적인 인간형과는 윤곽에서부터 다르게 만들고야 말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중국 여인의 발처럼 위축시켜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sup>58)</sup> 그리고 “영국의 위대함은 이제 모두 집단적이다. 마치 개인은 작기 때문에 연합하는 버릇을 통해야만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인도주의자들은 완전히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오늘과 같이 되도록 한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종류였고, 영국이 쇠망하지 않으려면 것처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59)</sup>

56) L 1/222.

57) L 1/226.

58) L 3/271-2.

내용은 접어두고 어조만으로도 벤담은 경악했을 것이다. 토크빌의 메아리에 해당하는 쓰라린 대목도 그랬을 것이다 — “비교적으로 보아 사람들은 이제 같은 글을 읽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에 가며,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여 희망과 공포를 느끼고,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같은 수단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한다 …… 이 시대의 정치적 변화는 모두가 낮은 것을 끌어올리고 높은 것을 끌어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동화들] 촉진한다. 교육은 모두 사람들을 공통된 영향력 아래로 끌어 모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한다.” “의사소통 수단의 향상도 이를 촉진”하고, “공공 여론의 독재”도 이를 촉진한다. “개인성에 대해 적대적인 영향력의 덩어리가 워낙 커서”,<sup>60)</sup> “이 시대에는 순응하지 않은 하나의 사례만 되어도, 관습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거부만으로도 그 자체가 공헌이다.”<sup>61)</sup> 이제는 단지 다르기만 해도, 저항을 위한 저항만으로도, 반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준봉주의,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위해 거기에 달린 팔에 해당하는 불관용은 밀에게 언제나 진저리나는 것으로, 스스로 개명되었다고 자처하는 시대, 그렇지만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이십일 개월 동안 감옥살이를<sup>62)</sup> 해야 하고 공인된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이 박탈되고 외국인인 정의를 누리지 못하며, 관용이란 오직 기독교도에게만 바람직한 것이지 비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명청함을 과시”<sup>63)</sup>한 한 차관의 발언 때문에 힌두교나

59) L 3/272.

60) L 3/274-5.

61) L 3/269.

62) (옮긴이) 리처드 칼라일 본인과, 아내, 여동생, 출판사의 직원 여덟 명, 그가 펴낸 무신론 개혁파 잡지 《공화주의자(The Republican)》의 남녀 판매원 150명 이상이 신성모독과 반역을 부추킨다는 죄목으로 줄줄이 감옥으로 갔다.

이슬람교 계열의 학교에는 공공 자금이 투여될 수 없는 등의 시대에는 특히나 끔찍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회원 중에서 숨씨가 더 좋거나 더 근면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자 노동자들이 “도덕 순찰대(moral police)”<sup>63)</sup>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하등 나을 것이 없다.

이런 행태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까지 간섭해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가증스럽게 된다. “성관계에 관하여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들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상관없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는 따위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성관계라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행위를 인류가 역사의 유아기에 저지른 미신과 야만으로 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밀은 선언했다.<sup>64)</sup> 절제하라는 강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강요, 또는 “나서기 좋아하는 경건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sup>65)</sup>고 충고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끼어들어 참견하는 모든 문제들이 밀에게는 다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보였다. 남의 아내이던 해리엇 테일러와 교제한 시기에 그 자신을 겨냥하여 나온 — 토머스 칼라일은 그들의 관계를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 뒷공론 때문에 밀이 이런 형태의 사회적 박해에 유난히 민감해졌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모두 가장 깊고 가장 영속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63) L 2/240, 각주.

64) L 4/287.

65) *Diary*, 1854년 3월 26일, CW xxvii 664.

66) L 4/286.

가장 억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유일하게 정의로운 정부 형태인지에 관한 밀의 의혹 어린 시선도 같은 뿌리에서 연원한다. 권위가 집중되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 개인이 전체에게 의존하고 “각 개인이 전체에 의해 감시”당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들이 “사고와 처리와 행동에서 길들여진 획일성”<sup>67)</sup>에 따라 맞추어지고 “사람의 형태를 띤 자동인형”<sup>68)</sup>들이 생산되며 “자유가 실패되는”<sup>69)</sup> 결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고 물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전에 토크빌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불러들이고 있던 도덕적 지적 효과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쓴 바 있다. 위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대목을 인용하자면, “그러한 권력이 한 나라의 인민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존립을 방해하고 ..... 위축시키며 탈진시키고 무력화하며 얼을 빼버린다.” 그리하여 “겁을 집어먹어 부지런하기만 한 동물로 만들어 버리고 정부더러 그 목동 노릇을 하게 만든다.”<sup>70)</sup> 밀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토크빌 본인이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마뜩찮게 생각하면서) 주장했듯이, 충분한 숫자의 개인들을 교육하여 자립과 저항과 강건함으로 이끌어 갈 유일한 방도인 민주주의의 증진이다.<sup>71)</sup>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려는 성향이 워낙 강해서 권

67)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2, chapter 1, CW ii 209.

68) L 3/263.

69) 아내 해리엇에게 보낸 1855년 1월 15일자 편지, CW. xiv 294. 밀은 *liberticide*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강조제로 썼다.

70) *Democracy in America*, part 2(1840), book 4, chapter 6, “민주적인 나라가 두려워해야 할 전제의 종류”: vol. 2, p.319, ed. Phillips Bradley, trans. Henry Reeve & Francis Bowen(New York, 1945).

71) 토크빌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증진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시공의 제약을 받은 자기 자신의 견해보다 넓은 안목에서 보면 아마도 궁극적으로 더욱 정 의롭고 더욱 관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력의 결핍만이 그 유일한 제약이다. 그런데 그 권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방벽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 성향이 날로 증가해서 의견을 억누름으로써 “굶실대는 자”, “시류에 영합하는 자”,<sup>72)</sup> 위선자들이 창조되어 확산되고,<sup>73)</sup> 마침내 겁에 질린 소심함이 독자적인 사유를 죽여 버리고 사람들은 안전한 주제 안으로만 침잠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벽이 너무 높게 설치된다면 그리하여 개인의 의견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베크나 헤겔주의자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사회의 짜임새가 와해되고 단자화되어 무정부 상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밀은 “공중(公衆)에 대한 어떤 의무도 위반하지 않고 본인 말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지각될 만한 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편함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더 큰 선을 위해 참고 견디더라도 사회에게 지장이 없다”고 답한다.<sup>74)</sup> 견고한 사회 연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만약 사회가 시민들을 문명화된 사람으로 교육해 내지 못했다면, 남에게 귀찮거나 다수가 받아들이는 어떤 표준에 순응하지 않거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할 권리는 사회에게 없다는 말과 같다. 매끄럽게 조화로운 사회가 어쩌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창조될 수 있겠다고 양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갈등 없는 사회가 출현한다면 시인들이 모두 추방되어야 하리라고 본 플라톤은 정확했다. 이런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은 환상이나 쫓아다니는 시인들이 추방당한다는 점 자체라기 보다는 다양성과 움직임과 모든 종류의 개인성을 끝장내려는 욕구,

72) L 2/242.

73) L 2/229.

74) L 4/282.

삶과 사고를 시공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확실적인 어떤 고정된 패턴에 맞추려는 열망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저항할 권리와 반발할 역량이 없다면 정의도 없고 추구할 만한 목적도 없다고 밀은 생각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을 빼고 의견이 똑같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나머지 모두를 침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다.”<sup>75)</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 W. 리빙스턴은, 의심할 나위 없이 밀에게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념 강연의 자리에서 인간에게 합리성을 너무나 많이 귀속했다는 혐의를 그에게 걸었다. 재갈 물리지 않은 자유란 타고난 권능을 완숙하게 계발한 사람들의 권리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또는 역사의 대부분에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것이다. 밀의 요구와 낙관론은 적정선에서 한참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sup>76)</sup> 리빙스턴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분명히 있다—밀은 예언자가 아니었다. 사회현상의 진행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힘들이 높이 치솟아 20세기 역사의 판형을 짜게 되리라는 기미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부르크하르트와 마르크스, 파레토와 프로이트는 당대의 흐름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더욱 민감해서, 개인과 사회가 나타내는 행태의 원천을 훨씬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밀이 자기 시대의 개명되었음을 과장했다거나 당대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성숙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증거는 내가 알기로 없다. 어떤 표준으로 보더라도

75) L 2/229.

76) Sir Richard Livingstone, *Tolerance in Theory and in Practice*, 제1회 로버트 웨일리 코언(Robert Waley Cohen) 기념강연(London, 1954), pp. 8-9.

도 문명인이라고 해야 할 어떤 사람들을 편견과 어리석음과 “집단적 범용”<sup>77)</sup>이 억누르고 차별하고 박해하는 광경을 그는 눈앞에서 목격 하였던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여겨서 저항했던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진보, 모든 위대함과 덕과 자유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앞길에서 장애물을 치워 주는 데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플라톤 식의 수호자를 임명하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sup>78)</sup>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은 후에는 선택할 자격을 갖출 것이며, 그때 선택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인에 의해 방해도 지시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옹호하는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듯이) 피교육자의 권리인 자유를 망각하지도 않았고, 총체적인 자유를 위해 밀어붙이다가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렇듯이) 적정 수준의 교육이 없이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혼란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로 돌아가고 말리라는 점을 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교육과 자유 둘 다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금세 쉽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불신했다. 이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공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아직도 예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빙스턴은 밀이 당대의 정황을 예민하게 의식하였지만 그 이상은 보지 못했다고 관찰했다. 내가 보기에 이는 온당한 평인 것 같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팽배해서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그 시대 최고로 재능 있는

77) L 3/268.

78) 생사몽이나 콩트와 같은 합리적 엘리트주의자, 그리고 웰즈(H. G. Wells)나 여타 테크노크라트들과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인물이었던 밀, 칼라일, 니체, 입센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기와 더 많은 조명을 요구했다. 오늘날의 대중이 느끼는 신경쇠약은 광장 공포증이다. 사람들은 지침이 너무 없고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흠스의 자연 상태에서 사는 주인 없는 사람처럼, 자유가 너무 많아져서 광막한 진공관에 친구 하나 없이 버려질까 봐, 길도 이정표도 목표도 없이 사막에 홀로 남을까 봐 깜짝 놀라, 바다가 덮치지 못하게 막아 줄 방벽을 달라고, 질서와 안전과 조직,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우리는 19세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의 문제도 그때와는 다르다 — 비합리성이 차지하는 영역은 밀이 꿈속에서 상상이나마 해보았던 것보다도 더 넓고 복잡하다. 밀의 심리학은 이미 낡은 것이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만큼 더 낡아진다. 자유를 보람 있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으로 도덕적 지적 안목의 결여와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장애에만 주목하고 빈곤이나 질병 또는 그 둘의 공통된 원인 또는 상호작용에는 그다지 (그래도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간과한 것은 아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이는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심리학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단한 새로운 힘도 보유하고 있건만,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로크, 몽테스키외, 레싱, 디드로 등, 인문주의를 창시한 이들이 주창했던 고래의 처방 말고, 이성 과 교육과 자아 이해와 책임 말고, 한 마디로 줄이면 자아 이해 말고 무슨 새로운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 말고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것 말고 다른 희망이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 IV

밀의 이상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융합하려는 시도로, 괴테와 빌헬름 뢰블트의 목표와 같이 풍부하고 자발적이며 다면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롭지만 합리적이며 자아 지향적인 인간형을 향한 추구이다. 밀은 유럽인들이 “길이 여러 갈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sup>79)</sup> 차이와 불일치 그 자체에서 관용과 다양성과 인간성이 샘솟는다. 문득 평등주의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때면 사람들이 보다 개인적이었고 보다 책임감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세를 찬양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상을 위해 죽기도 했고 여자가 남자와 동등했다는 것이다. “불쌍한 중세시대, 교황 체제와 기사도와 봉건제는 누구의 손에 사멸했는가? 다름 아닌 변호사, 거짓 파산자, 주화 위조범”<sup>80)</sup>이라고 한 미술레의 한탄을 인용하며 동시에 승인한다. 이것은 버크나 칼라일이나 체스터턴<sup>81)</sup>의 말이지 철학적 발본주의자<sup>82)</sup>의 말이 아니다. 삶에 색깔과 질감이 있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밀은 자기편의 순교자 명단을 잊었고 아버지와 벤담과 콩도르세의 가르침을 망각했다. 그는 단지 콜리지만을 기억했고, 오직 가지런히 평준화된 중산층 사회, “자기가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도 모두 행

79) L 3/274.

80) Jules Michelet, *Histoire de France*, vols 1-5 (Paris, 1833-41), book 5, chapter 3 (vol. 3, p. 32). 이 책에 관해 쓴 논평에서 인용되는 대목이다. CW xx 252.

81) (옮긴이)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1936): 20세기 초반의 영국 작가. 역설적인 표현을 즐겨 지어냈고, 엄청난 다작으로 80권의 책, 수백 편의 시, 200여 편의 단편소설, 4000여 편의 수필 및 논설, 한 편의 희곡을 남겼다.

82) (옮긴이) 철학적 발본주의자(philosophical radical): 벤담, 고드윈, 메리 월스턴 크래프트,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 합리성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동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개인의 절대적인 사회적 권리”<sup>83)</sup>라고 하거나, 또는 한 술 더 떠서 “신은 불신자의 행위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가만 놔두는 우리에게도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의무”<sup>84)</sup>라고 천명하는 잔인한 원칙을 숭배하는 회색 빛 준봉주의자들의 집합이 얼마나 끔찍한지만을 뇌리에 새겼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족인지 아닌지를 판별했다. 그런 것이 사회정의라면 그런 정의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자유론』의 출판보다 시기상 앞서는 비슷한 일화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가 옳은 양 변명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격분한 밀은 정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면서 혁명과 살육을 향한 바람을 표한 바 있다.<sup>85)</sup> 이런 발언을 할 때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스물다섯 해가 지난 후에도 그는 야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내면에 갖추지 못한 문명은 차라리 소멸되는 것이 낫다고 선언했다.<sup>86)</sup> 이런 표현은 칸트의 목소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루소나 마치니의 목소리에 가깝지 공리주의자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밀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경우는 드물다. 혁명은 그의 해법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전될 만하게 되려면 정보는 집중되어야 하고 권력은 분산되어 널리 퍼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이 알

83) L 4/289.

84) Ibid.

85) (편집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존 스티어링(John Sterling)에게 보낸 1831년 10월 20-22일자 편지에 적힌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CW xii 84. 앞에 나온 “혁명이 나서 일 년에 오백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를 모두 죽여 버리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 편지에 나오는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86) L 4/291.

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왜소하게 만든다”<sup>87)</sup> 국가, “모두 다 평등하지만 모두 다 노예인 서로 고립된 개인들로 만들어진 집합을 집행부의 우두머리가 절대적으로 통치하는”<sup>88)</sup> 국가, “왜소한 사람들로서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sup>89)</sup> 국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경련이 일어나게 만들고”, “질리게 하고”, “왜소하게 만든다”<sup>90)</sup> 삶의 신조와 형식은 끔찍스러운 정도로 위험하다. 대중문화의 결과로 비인간화가 초래되며, 사람을 광고와 언론의 매체를 통해 착각에 빠뜨리고 조작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개인이든 집단이든 진심에서 우러나는 목적이 파괴되고 만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뚜렷이 감지된 자각—인간의 무지, 악, 어리석음, 인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기만과 맹목적인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자연의 힘과 어울려 빛어내는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소외”된다는 자각—이 모든 점들을 밀은 러스킨<sup>91)</sup>이나 윌리엄 모리스<sup>92)</sup>와 마찬가지로 깊게 느끼면서 괴로워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밀이 그 두 사람과 다른 점은 개인의 자아 표현과 인간 공동

87) L 5/310.

88) *Autobiography*, chapter 6, CW i 201.

89) L 5/310.

90) “경련이 일어나게 만들고(cramp)”, “왜소하게 만든다(dwarf)”는 표현은 L 3/266에 나온다. “질리게 한다(stunt)”는 *Autobiography*, chapter 7(CW i 260)과,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hapter 3(CW xix 400)에 나온다.

91) (옮긴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영국의 작가, 시인, 예술 평론가, 사회 평론가. 그의 예술 평론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며, 그의 사회주의적 시각은 당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92) (옮긴이)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5): 영국 예술 공예 운동의 개척자이자 사회주의 이론가. 벽지와 무늬가 들어간 섬유를 고안했고, 마르크스주의를 영국에 전파했다.

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서 오는 딜레마를 그들보다 명료하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자유에 관한 그의 논고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글이었다. 이 논고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가치 있는 것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sup>93)</sup>고 밀은 암울한 어조로 덧붙였다.

철학자들에게 가장 깊은 확신이 공식적인 주장에 담겨서 표명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근본적인 믿음이나 삶에 관한 포괄적인 견해를 적을 대비해서 경비해야 할 성채와도 같다고 버트런드 러셀은—밀의 대자(代子, godson)였다—말한 적이 있다.<sup>94)</sup> 철학자들은 자기의 신조에 대해 실제로 가해지거나 가해질 수 있는 반론을 상대로 논증하는 데에 지력을 소비한다—그들이 찾아낸 이유나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복잡하고 천재적이며 강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방어용 무기인 것이다. 내면에 요새를 이루고 있는 인생관은—전투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대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고도의 이론적 전개가 필요 없다. 자유에 관한 논고에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밀의 논리는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지는 않다. 그가 펼치는 논증의 대부분은 거꾸로 그 자신을 겨냥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는 반대자라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주장은 하나도 없다. 밀이 사망한 해에 강력한 반론을 출판했던 제임스 스티븐<sup>95)</sup>의 시대에서부터 우리 시대의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옹호하는 사람보다는

93) *Autobiography*, chapter 7: CW i 260.

94)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New York, 1945; London, 1946), p. 226.

95) (옮긴이) 제임스 스티븐(Sir James Fitzjames Stephen, 1829~1894): 영국의 법学家, 판사. 밀에 대한 비판은 밴담과 (또는 홉스와) 같은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밀과 같은 신중 공리주의에 반발한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적으로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성채는—주장의 요체는—시험을 견뎌냈다. 단서 조항들을 좀 더 붙이고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책은 여전히 개방되고 관용적인 사회를 원하는 사람의 견해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솔직하며 설득력 있게 개진한 감동적인 글이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단순히 밀의 정직한 마음이라든지 도덕적, 지적으로 매력에 있는 문체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특성과 열망에 속하는 것들에 관해서 무언가 참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명료한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의심의 여지도 많이 있는) 명제들을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적 고리로 엮은 결과를 토로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향상을 위해 인간이 가장 성공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파멸이 닥쳐 오고야 만다든지, 현대 민주주의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그리고 그런 결과 중에서도 최악의 것들을 옹호하려고 했던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이론에 담겨 있는 오류와 나아가 실제적인 위험과 같은 심오하고 본질적인 측면을 감지했다. 논증이 취약하고 결론의 끝이 느슨하게 열려 있고, 사례들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디즈레일리<sup>96)</sup>가 심술궂게 비아냥거렸듯이 보모의 잔소리 같은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천재들만이 보유하는 과감한 발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 당대인들을 교육하고 지금까지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밀의 핵심 명제들은 동어반복이

96) (옮긴이)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 영국 정치인, 수상(1868, 1874~1880), 대중소설의 작가로 입신한 다음, 토리당에 영입되어 지도자로 성장했다. 휘그당의 글래드스톤과 라이벌로 19세기 후반 영국 정치에서 한 축을 담당했다.

아니다. 그것들은 전혀 자명하지가 않다. 그것은 마르크스, 칼라일, 도스토예프스키, 뉴만,<sup>97)</sup> 콩트와 같이 당대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로부터 반발과 거부를 불러일으킨 한 입장을 연표화한 것으로, 지금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다. 『자유론』은 그 시대에 진짜로 골치 아픈 쟁점들을 함축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글이다. 그 글에 담긴 원리와 결론이 생명력을 가지는 까닭은 부분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서 발생한 예리한 도덕적 위기를 거쳐서, 그리고 그 후에는 구체적인 명분을 위해 그 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그러므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쓴—결단을 내리는 데에 바쳐진 삶에서 샘솟은 것이기 때문이다. 밀은 자기에게 궁금했던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는 어떤 정통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에 대한 반향, 콜리지를 비롯한 낭만파의 가치에 대한 과감한 동조는 그런 안경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린 해방의 몸짓이었다. 그 뒤에는 절반밖에 맞지 않은 낭만주의에서도 스스로 해방되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스펜서와 콩트, 테느와 버클, 심지어 칼라일과 러스킨까지 당대에는 아주 커다랗게 떠올랐던 인물들이 과거의 그늘 속으로 급속도로 물러났지만 (또는 묻혀 버렸지만) 밀은 여전히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삼차원적이고 원숙하며 진심을 보유한 성품에서 나타나는 징후 한 가지는 우리 시대의 문제에 관하여 그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레퓔스 사건에서, 보어 전쟁에서, 파시즘 또는 공산주의에 관해 그가 어떤 입장을

97) (옮긴이) 뉴만(John Henry Newman, 1801~1890): 영국의 추기경, 영국 교회 목사로서 시작해서 영국 교회가 보다 가톨릭적인 체제와 신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취했을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뮌헨 회담,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갈등,<sup>98)</sup> 부다페스트의 봉기와 학살,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또는 울펜던 보고서<sup>99)</sup>에 관해서는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 빅토리아 시대에 활약한 다른 도덕이론가, 칼라일이나 러스킨이나 디킨스, 또는 심지어 킹슬리<sup>100)</sup>나 월버포스<sup>101)</sup>나 뉴만의 경우에도 우리가 것처럼 확신할 수 있나? 이 점만으로도 밀이 다른 쟁점들이 영속적이었으며 그 문제들을 다룰 때 그의 통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된다.

## V

밀은 보통 정의롭고 높은 영혼의 소유자로 존경할 만하고 민감하며 다정하지만 “냉철하고 언제나 꾸짖는 듯하며 음울한”<sup>102)</sup> 빅토리

98) (울긴이) 수에즈 위기(Suez Crisis): 1956년 이집트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데에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반발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소련이 이집트 편으로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자 세계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양보를 종용해서 끝났다. 밀이라면 당연히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99) (울긴이) 울펜던 보고서(Wolfenden Report): 영국에서 1957년에 동성애와 매춘에 관한 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도덕을 법률로 규제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닌 한 성행위는 사생활에 맡겨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100) (울긴이) 킹슬리(Charles Kingsley, 1819~1875): 영국의 작가, 역사소설을 많이 썼고, 당대에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101) (울긴이) 월버포스(Samuel Wilberforce, 1805~1873): 영국 교회의 주교, 노예 무역에 반대했던 윌리엄 월버포스의 아들. 토머스 헉슬리와 그의 공개 논쟁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공격했다.

아 시대의 전형적인 교장 선생의 상으로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일간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난 학자 같기도 하다. 착하고 고상한 사람이지만 침울하고 독선적이며 매달렸다. 진열장 안에 있는 여러 밀랍 인형 중의 하나처럼 이제는 죽고 없는 과거, 딱딱해진 인형 속에서나 존재하는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가장 감동적이라 할 수 있는 서술에 해당하는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와 같은 인상이 교정된다. 밀은 틀림없는 지성인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는 주로 일반적인 관념들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자기가 속한 사회는 바로 그것을 대체로 불신했음을 알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가장 명백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하는 습관이 있다”고 친구 다이히탈에게 쓴 편지에서 말한다.<sup>103)</sup> 그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흥겨워했고, 그 생각을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흥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영국인과는 달리 지성인들을 존경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을 찬양했다. 영국에서도 각 가정에서는 지성의 행진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전체 풍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우리의 경우 ‘지성의 행진’이라는 것이 결국 지성이 없이 지내보자는 방향, 모두들 단결하여 수많은 소인을 끊임없이 공급함으로써 거인의 부재를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행진이 아닌지” 의문시했다.<sup>104)</sup>

102) Michael St John Packe, *The Life of John Stuart Mill*(London, 1954), p. 504.

103) 1830년 2월 9일자 편지, CW xii 48.

(울긴이) 다이히탈(Gustave d'Eichthal, 1804~1886): 프랑스의 작가, 생시몽주의자.

104) “On Genius”(1832), CW i 330.

(편집자) 이 글은 *Monthly Repository* NS 6(1832), 556~64, 627~34에 두 편으로

관념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시켜 주거나 또는 콜리지나 생시몽 그리고 스스로 믿었듯이 해리엇 테일러의 선형적인 천재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가 눈앞에 펼쳐진다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비판 그 자체를 좋아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칭찬이더라도 아침은 몹시 싫어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교조주의를 공격했고 그 자신은 진실로 교조에서 자유로웠다. 아버지와 스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범하게 열린 마음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차가울 정도로 동요하지 않는 외모”와 “커다란 증기기관이 일하듯이 이치를 따지는 두뇌”가 (그의 친구 스티어링의 표현을 인용하면) “따뜻하고 옅고 진실로 고귀한 영혼”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라도 배우고 싶어 하는 감동적으로 순수한 마음 자세가 결합한 사람이었다.<sup>105)</sup> 그에게는 허영심이 결핍되어 있었고, 평판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일관성만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에 집착하지도 않았다. 일단 가담하면 운동이나 명분이나 정당에 충성을 다했지만, 스스로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지지하라는 압박에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이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는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가장 엄격하고 가장 편협한 무신론 교조를 아버지에게서 교육받았지

나뉘어 실린 저자미상의 논설에 대한 응답이었다. 미상의 저자는 지성의 “행진이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글 전체에 걸쳐서 표명하는데, 정확히 “지성의 행진(march of intellect)”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대신 “정신의 행진(march of mind)”이라는 표현은 나타난다(557쪽, 아울러 558쪽도 참조하라).

105) 존 스티어링이 아들 에드워드에게 보낸 1844년 7월 29일자 편지로 Anne Kimball Tuell, *John Sterling: A Representative Victorian*(New York, 1941), p.69에 인용되어 있다.

만, 결국 그 교조에 항거하게 된다. 공인된 형태로는 어떤 신앙도 가지지 않았지만, 종교를 한 조각의 유치한 감상과 환각, 위안을 주는 착각, 알 수 없는 헛소리 아니면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보았던 프랑스의 백과전서파나 벤담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는 종교를 일축하지 않았다. 신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실은 아마 존재할 것이라고, 다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그러나 신은 악의 존재를 허용했기 때문에 만일 선한 존재라면 전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선하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전능한 존재에 관해서는, 인간의 논리적 규칙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주의적 믿음을 그는 단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여겨 거부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관해서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자주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논리와는 멀리 떨어진 신앙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 자신은 그런 신앙을 거부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선의 인물로 경배했고, 유일신주의를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상한 믿음 체계로 간주했다. 영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가능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았다. 무신론을 불편하게 여기고 종교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던 그는 다름 아닌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불가지론자였다. 하원 의원에 입후보하게 되었을 때 (선거 결과 당선되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의 유권자들이 묻는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겠지만 종교적 견해는 밝히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이는 비겁해서가 아니다——선거 기간 내내 그가 보인 언행은 너무나 솔직하고 무모하다고 할 만큼 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평하기를 믿을 대신해서 신이 출마를 했더라도 당선되리라 기대할 수 없었으리라고 했을 정도였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묵살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의붓딸 헬렌 테일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무신론에 더 확실하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한다고 비난했을 때에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맘속의 의심도 그 자신의 자산이었다. 그의 침묵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다고 판명되지 않은 한, 그에게서 신앙 고백을 뽑아낼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런 판명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까닭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액튼도 그랬듯이, 모든 참된 신앙에게는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필수불가결한 보호막이라 여겼고, 영혼의 왕국과 지상의 왕국을 교회가 구분한 덕택으로 의견의 자유가 가능하게 된 만큼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았다. 의견의 자유야말로 그가 무엇보다도 높게 가치를 매긴 것이었다. 브래들러<sup>106)</sup>와 의견이 달랐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를 열정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한 세대와 한 나라에게 스승이었지만, 그저 스승이었을 뿐 창조자도 혁신가도 아니었다. 어떤 불멸의 발명이나 발견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논리학, 철학, 경제학, 또는 정치사상에서 무슨 중요한 진보를 이룬 것도 거의 없다. 그렇지만 머릿속의 생각들을 각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로 연결시켜 적용한 능력과 안목의 넓이에서 그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독창적이지는 않았지만, 당

106) (옮긴이). 브래들러(Charles Bradlaugh, 1833~1891): 무신론과 피임과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발본파. 1880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의원 선거에서 무신론자이므로 신에 대한 서약(oath)을 행할(take) 수는 없고 다만 승인(affirm)은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 년 이상 의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4선 의원이 되었고 1886년에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의원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매우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다.

대 인간 지식의 구조를 변혁했던 것이다.

예외적이랄 만큼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개명된 정신의 (그 정신은 맑고 훌륭한 산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소유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불굴의 추구를 진리가 사는 집은 여럿이어서 심지어 벤담처럼 “한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도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못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과 결합시켰기 때문에,<sup>107)</sup> 감정을 억누르고 지성만이 과도하게 개발되었음에도, 유머라고는 없이 엄숙하게 이지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선배들보다 더 깊은 인간관과 더 폭넓고 더 복잡한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욕구와 감정과 동기를 가지고, 상황이나 자극이 다른 만큼만 다르게 반응하고, 모종의 불변하는 패턴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하는, 고전 시대와 이성의 시대에서 공히 물려받은 사이비 과학의 모델과 그는 단호히 결별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의식하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을 창조적이고 자기 완성의 능력이 있고 따라서 결코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존재, 실수를 저지르고 정반대의 속성들이 — 어떤 것들은 서로 화합이 가능하지만 결코 조화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 진리와 행복과 새로움과 자유를 향한 탐색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하지만 신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목표 지점에 도달할 보장은 없는 존재, 자유롭고 불완전한 존재, 자기 이성과 재능을 계발하기에 알맞은 환경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자유의지의 문제 때

107) “Bentham”, CW x 94, “독창적이고 놀라운 발상으로 인도한 풍부한 사고의 맥은 거의 모두가 체계에 의존한 반쪽 사상가들에 의해 길이 열렸다”고 덧붙인다.

문에 고뇌에 빠져서, 간혹 자기가 그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남보다 나은 해답은 찾지 못했다. 인간이 나머지 자연과 다른 점은 합리적 사고도 아니고 자연에 대한 지배도 아니라, 선택하고 실험하는 자유라고 믿었다. 바로 이 견해가 그에게 불후의 명성을 가져다주었다.<sup>108)</sup> 자유라는 말로 그가 의미한 바는 각자가 숭배할 대상과 방식을 선택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상태였다. 그에게는 이런 상태가 실현된 사회만이 온전히 인간적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밀은 삶 자체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겼다.

108) 정신이 올바른 지식인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발상을 밀이 옹호했다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는 내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이 글의 주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부각한 고려사항들뿐만 아니라 정확히 그와 같은 위계질서를 꿈꿨던 콩트 식의 전체적 발상에 대한 밀 자신의 경고를 염두에 둘 때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납득할 수가 없다. 아울러 그는 19세기 영국과 다른 지역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비판적인 전통주의의 영향과 순전한 관성의 힘을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민주주의적 다수의 통치를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고삐 풀린 민주주의의 폐해에 대비한 어떤 보장책을 자신의 체계 안에 마련해 넣으려고 했다. 무지와 비합리가 팽배한 상태일지라도 (교육을 통한 발전의 정도에 대해 그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했다) 공동체 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러나 밀이 다수결 자체에 대해 염려했다고 말하는 것과, 권위주의의 성향이 있었다거나 합리적 엘리트의 통치를 편들었다는 — 페이비언 협회 회원들이 밀을 인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거나 말거나 — 혐의를 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그를 추종한 사람들, 특히 그 자신이 택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그가 책임질 일은 없다. 바쿠닌이 마르크스를 공격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인 “현학정(衛學政, *pédantocratie*)”, 다시 말해 교수들에 의한 정치를 세상 모든 사람이 옹호하더라도 끝까지 옹호하지 않았을 사람이 밀이다. 그는 모든 형태의 전체정 중에서도 가장 억압적인 형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집자) 실은 “현학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콩트에게 쓴 1842년 2월 25일자 편지에서 밀이 만든 것이다, CW xiii 502. 콩트도 그 표현이 맘에 들어서 밀에게 허락을 받아(xiii 524) 예컨대 *Catéchisme positiviste*(Paris, 1852), p.377와 같은

곳에서 사용했다. 밀은 나중에 L 5/308과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chapter 6, CW xix 439에서 그 단어를 영어로(*pedantocracy*) 바꾸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 바쿠닌이 그 말을 사용한 경우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Gosudarstvennost' i anarkhiya*에 “현학자의 노예라니 — 인간의 운명이여!”라는 대목이 있다. *Archives Bakounine*, vol. 3, *Étatisme et anarchie*, 1873 (Leiden, 1967), p.112, 그리고 Michael Bakunin, *Statism and Anarchy*, ed. and trans. Marshall Shatz(Cambridge etc, 1990), p.134를 보라.